

국내외 버어리종 잎담배의 건조 동향과 앞으로의 방향

배 성 국

한국인삼연초연구원 전주시험장

국내 버어리종 잎담배 수량이 250~260kg/10a 범위에서 300kg/10a까지 점차 증가하는 반면 제조담배의 버어리종 배합비율은 20% 미만으로 제한됨에 따라 적재량이 크게 증가되었을 뿐 아니라 버어리종의 킁미불량으로 제조담배의 품질에도 minus 영향을 미치고 있다. 따라서 담배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제조담배의 품질향상이 선행되어야 할 시점에서 버어리종 원료 잎담배의 킁미증진을 위한 품질향상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본다. 물론 버어리종 잎담배 생산에서 킁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킁미에 가장 크게 관련된 부분이 버어리종 건조로 보여 산지에서 수행되는 건조의 실태를 파악해보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보는 것이 버어리종 킁미개선을 위한 측면에서 바람직하리라 본다.

1. 국내 버어리종 잎담배 건조조건

- 버어리종 잎담배는 6월 중순부터 8월까지의 혹서기와 장마기에 건조되고 있으며 태풍이 1~2회 정도 통과함에 따라 아주 불리한 건조환경 조건에서 건조되고 있다.
- 건조시설은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고 건조방법은 80% 정도가 15평형의 소형 건조실에서 줄말림으로 건조되고 20% 만이 50평형의 대말림시설에서 건조되고 있다.
- 불리한 자연환경에서 버어리종을 건조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건조기간을 단축시키려고 차광이나 환기를 소홀히 하여 건조함으로서 급건염이 발생되기 쉬운 조건에서 건조되고 있다.

2. 미국의 버어리종 잎담배 건조조건

- 건조시설이 대형 목조건조실로 완전 음건조건에서 안정생산이 가능하고 건조

기간이 8월 하순부터 10월까지로 비교적 서늘하고 저습조건에서 대말림으로 40일~60일 동안 장기간 건조되고 있다.

3. 국내 버어리종 잎담배의 건조 문제점

- 국내 버어리종 잎담배 건조의 문제점은 수량증가에 따른 건조실 부족과 건조실이 거의 전부 비닐로 피복되었기 때문에 기상재해에 대한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고, 줄말림으로 수확 건조하므로 노동력이 과다하게 소요될 뿐 아니라 기계화가 곤란하다. 빨리 건조를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급건엽 등 건조이상엽이 증가하여 품질의 저하요인이 되고 있다.
- 급건엽 발생으로 정상건엽보다 단위엽면적중이 4~5% 더 무거웠고, 단백질질소, 전분, 전당함량 등의 성분이 정상건엽보다 크게 증가되어 있어 급건엽에서 내용성분의 소실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러한 현상이 껍미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. 또한 급건엽에서 Ammonia 성분이 정상건엽보다 크게 감소되었고 정유성분은 DVT, Neophytadiene 등 향기성분의 전구물질 함량이 증가하는 반면 Solanone과 같은 향기성분은 크게 감소되어 급건엽에서 바람직한 정유성분의 생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.

4. 국내 버어리종 잎담배의 건조방향

- 외기 기온이 고온인 시기에 건조하므로 온도관리는 가능한 한 환기량을 최대한으로 하고 차광재료를 활용하여 외기 기온과 유사하도록 건조실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. 또한 엽중 수분의 탈수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건조가 진행됨에 따라 달줄간격을 6cm까지 좁혀서 배습이 서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.
- 건조기간에 외기 습도가 높기 때문에 차광재료를 차광량이 80% 이상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 건조부패가 우려되므로 차광량이 70% 범위의 재료를 사용하고 50%의 유백색 유색비닐을 사용하여도 동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.
- 건조과정 중 황변기에 가장 많은 양의 내용성분이 변화 또는 소실되므로 이 기간을 최대한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건조하고, 줄말림을 대말림으로 전환함에 따라 껍미를 완화시키는데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.
-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방향을 생산 주체가 받아 드리고 수행할 수 있도록 의식이 전환되어지고 적극적인 자세에서 추진되어야 정상건엽의 생산이 가능하리라 본다.